

우편학을 아시나요

이 종 탁*

화폐학과 문헌학은 있는데 왜 우편학은 없을까. 백과사전에 보면 화폐학(Numismatics)은 통화와 화폐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고, 문헌학(philology)은 어떤 민족이 남긴 문헌을 연구해 그 민족과 당시 시대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개념규정이 돼 있다. 그렇다면 우표와 우편사, 우편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사회 문화상을 파악하는 것도 가치있는 학문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선 우편학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에선 ‘우편학’이 어엿한 학문으로 인정된다. 일본판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보면 우편학은 “우표와 엽서, 우편자료 등을 통해 그 국가나 지역의 모습을 읽고 해석하는 학문”으로 정의돼 있다. 영어 필라텔리(philately)를 흔히 우표수집이란 말로 번역하지만 사실 이 단어에는 취미로서 우표수집을 넘어 우표연구나 우표와 관련된 평론, 전시, 진위감정, 매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 설명한다. 전문 우표 수집가들이 스탬프 콜렉터(stamp collector)라는 말 대신 필라텔리스트(Philatelist)라는 말로 불리기를 더 좋아하는 까닭이다.

일본에서 우편학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대학강사이면서 논픽션 작가인 나이토 요스케(内藤陽介·42)씨다. 도쿄대 문학부를 나와 저작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2002년 12월 ‘우편

*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jtlee@kyunghyang.com

학 선언'을 통해 학문으로서 우편의 가치를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미디어가 정보전달 매체라고 할 때 우편은 매우 흥미로운 미디어다. 우편에 사용된 우표나 소인은 우정업무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미디어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우표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발행한다. 따라서 우표에는 그 시대 정부와 정권의 이데올로기, 또는 역사관이 반영돼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1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독도의 자연'이란 시리즈 우표를 보자. 당시 일본은 장관과 총리까지 나서서 "다케시마(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우리측에 발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한국 땅을 소재로 한 우표발행은 한국 고유의 권한"이라며 일본의 요구를 일축했다. 독도 우표로 한·일이 신경전을 벌인 것은 이때가 처음도 아니다. 1954년 9월 15일 우리 정부가 독도를 그린 3종의 보통우표를 발행하자 일본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문제의 우표가 붙은 한국 우편물은 반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도 있다. 우표가 국가 미디어 역할을 한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우표를 통해 정보접근이 어려운 나라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우편학의 한 매력이다. 나이토씨가 2001년 펴낸 책 '북조선 사전, 우표로 보는 북한'이 여기에 꼭 들어맞는 경우다. 북한 우표에 나오는 구호, 즉 '자력갱생'이나 '조선은 하나다', '여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한다', '모든 힘을 사회주의 대건설사업에 총동원하자' 따위의 글을 분석해 북한 정부의 정치성향과 정책방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우표가 붙은 편지봉투를 연구해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표 위에 찍힌 소인을 보면 이 우편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것이며 당시 우정당국의 행정단위구역은 어디까지였는지 한 눈에 드러난다. 한국 우편물 중 최고가로 알려진 태극우표 실체봉투를 보면 1897년 1월 28일자 경흥우체사 소인과 2월 20일자 한성우체사 소인이 찍혀있어 당시 우편물이 경흥에서 한성까지 가는데 23일이 걸렸음을 보여준다.

요금에도 정치 경제적 상황이 담겨있다. 각국의 요금수준을 비교해보면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우표 디자인과 인쇄술 또한 발행국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편학의 연구대상이다.

종합하면 우표나 우편물은 복합적·다면적 미디어다. 이 속에 역사학·사회학·정치학·국제

관계론·경제사·미디어연구 등의 분야가 녹아있는 셈이다.

우편학자 나이토씨는 ‘한국현대사 우표로 더듬어본 60년’, ‘외국 우표에 그려진 일본’, ‘우표와 전쟁 또 하나의 쇼와(昭和)전쟁’, ‘황실우표’, ‘반미의 세계사, 우편학이 파고들다’ 등 많은 저작을 내놓고 있다.

우편학이란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우편 전문연구자들이 있다. 근대우편제도의 이모저모를 연구해 ‘구 한국 시대의 우표와 우정’이란 책을 낸 석산 진기홍 선생은 국내 최고 전문가, 지난 8월 ‘외국우표로 본 한국의 모습’이란 책을 낸 부산우취회 소속 김승제씨는 젊은 층의 대표주자라 할 만하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우정경영연구소와 한국우취연합 등에도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있으나 일본에 비하면 아무래도 층이 얇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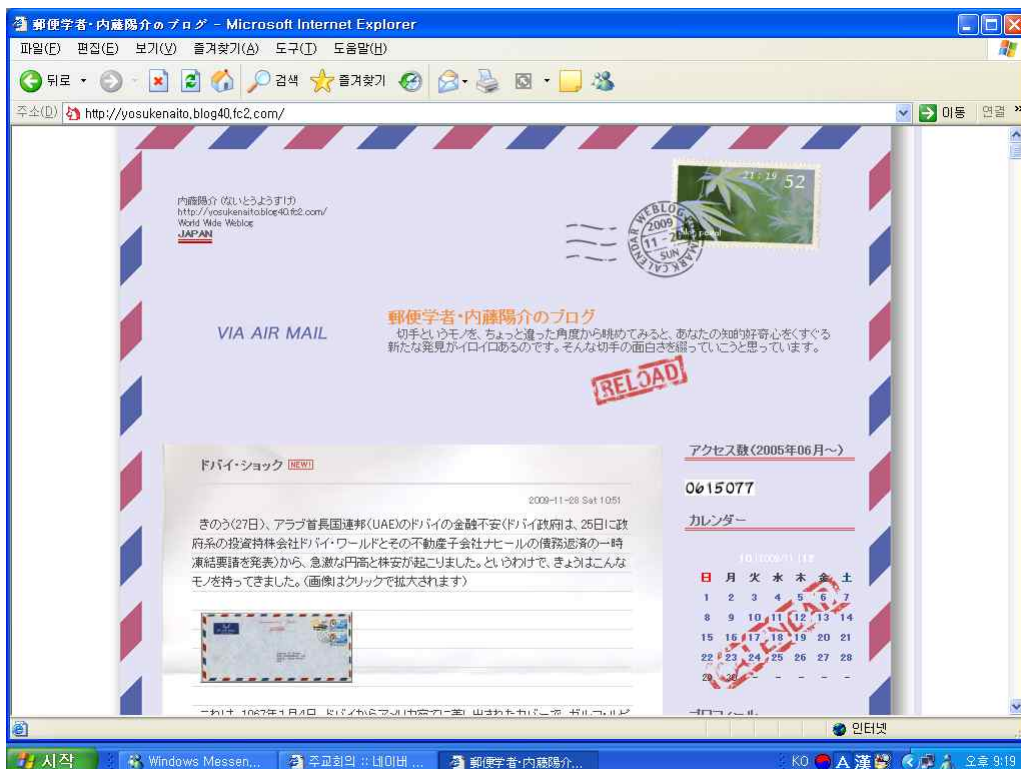


그림 설명: 우편학 주창자 나이토 요스케의 블로그.